프란시스코 데 케베도 시에서의 양의어 연구

안 영 옥
(고려대학교)

국문초록

스페인 17세기 대시인인 프란시스코 데 케베도는 기지주의의 대가이다. 케베도로 대표되는 이 기지주의는 형식적인 면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17세기의 또 다른 스페인 시의 대가 공고라의 과식주의와는 달리 의미적인 면에서 개념의 강세화, 집중화를 꾀하는 문학 흐름이다. 따라서 액면상 언뜻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 케베도의 시이지만 그 아래 감추어진 의미들을 발견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케베도의 어휘는 지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낱말이 본래 갖는 의미 이외에 지니고 있는 의미와 그것과 연관되는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할 때는 그의 작품을 이해할 수가 없다. 사물을 명명할 때 일상 사용하던 의미의 단어 대신 형태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 그와 연관되어있는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신조어까지 탄생하게 되는데, 이런 언어들은 너무나 과격하여 탁월한 시적 효과를 낳는다. 언어를 구사하는 방법과 언어 표현 능력에서의 그의 천재성은 역설, 암시, 대구, 말장난, 그리고 양의어 사용 등에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시를 쓰는 이유는 과식주의가 인간의 감각을 놀라게 하는 것이라면 기지주의는 인간의 기지를 놀래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같은 단어로서 여러 의미를 만들어 내며 말장난을 하는 양의어를 어휘적인 면과 구문적인 면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적인 면에서는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와 다른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이고 구문적인 면에서는 한 단어와 연계되는 다른 단어들과 함께 의미의 확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면은 사회상을 반영하는 양의어의 사용이다. 이 마지막 경우 케베도는 특히 현실을 뒤틀거나 사람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강등시키기 위한 풍자시에 즐

www.kci.go.kr

겨 사용되었다. 케베도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그 당시 사회의 모든 직분의 사람들과 현실들을 풍자하고 강등시켜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주제어
양의어, 풍자시, 프란시스코 데 케베도

1. 들어가는 말

돈 프란시스코 데 케베도 이 비예가스(1580-1645)는 스페인 바로크 시학의 양 산맥인 과식주의와 기지주의 중 기지주의의 대가이다. 다양하면서도 기발한 언어로 기지를 표현하려는 기지주의는 갖가지 수사법을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시인은 자신의 사고가 어떻게 전개되는 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휘들 간의 충돌을 야기 시켜 언어 액면의 의미가 아닌 숨겨진 의미를 돌출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주로 도덕적인 내용의 시에서나 풍자시에 많이 사용되는 데, 기지주의자들 중 누구보다도 케베도의 풍자시에서 구사되는 언어들은 너무나 과격하여 철면피적이라 할 만하다. 이 언어의 과격성으로 인해 케베도 작품은 탁월한 시적 효과를 누리고 있어 다마소 알론소는 그의 시를 "벼리된 분노"라고 지적했다. 사실 그의 언어는 눈부실 정도로 번쩍이며 단지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의 세세한 감정이나 외모, 행동 패턴 및 사고들을 정확하게 표현해 내고 있다. 의미가 계시로 내려앉듯 번쩍이며 독자의 기지를 일깨우려는 그의 시적 욕망은 스페인어가 시인자신의 표현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경우에는 스스로 언어를 만들어 쓰기 까지 했다. 패러디와 은유, 암시, 말장난, 대조, 역설 등등을 창조해 내는 그의 탁월한 언어 능력과 그의 직관이 합해져서 놀라운 종합적 표현을 얻어내는 것으로 판단하건데 그는 언어의 마술사라는 표현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논자는 이러한 케베도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조어 방법에 대하여 '께베도 어휘의 혁신'[1]이란 제목의 글로 논자의 케베도 시 모음 번역서 후기에 실은 적이

www.kci.go.kr

있다. 그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케베도가 언어를 새로이 만들어 내기 위하여 사용한 파생어나 짜깁기, 합성어, 어휘의 분할, 성명학을 통한 새로운 어휘의 개발 및 희작술과 신조어 방법 중에서 특히 '양의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기존의 언어에 접두어나 접미사를 더하거나 빼던지 또는 단어들의 조합 또는 기존 단어의 희작 등의 수준을 너머서서 같은 단어로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고 그 의미를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어떻게 사회의 모습을 그려내어 독자들에게 지적 즐거움을 주는지, 동시에 바로크의 미학을 어떻게 가장 훌륭하게 충족시키는 지를 그의 대표적인 풍자시를 통하여 분석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를 케베도가 쓰게 된 원인은 비중적인 면에서나 분량 상에 있어서 또 다른 연구테마가 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작품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인용한 원문은 James O. Crosby의 Poesía Varia(Gredos)에서 가져왔다.

케베도의 신조어방법을 살펴보면 네 가지로 정리되어질 수 있다. 한 가지는 외국어에서 가져와 스페인어로 한 것들이다. 예로 라틴어와 이탈리아어 프랑스어와 같은 외국 언어(라틴어 무스: 쥐, 시르꾼시르까: 가까이, 오스: 입, 뚜스: 향; 이탈리아어 베꼬: 새끼 산양, 뿔시넬라: 어릿광대나 인형;프랑스어 무슈 등)같은 경우이다. 두 번 째는 이미 있는 문형(라사리요 데 토르메스에서 나온 "꼬꼬, 마마"에서 "뿌떼노르 빠레")를 흉내 내어 만들어 낸 표현이다. 세 번째는 그 당시 사회상황에 맞추어 만들어 낸 언어들(빠호떼스:짚으로 만든 멍석; 남성이 성기를 '창'으로 몸뚱어리는 '법전')이다. 마지막은 그의 기지주의를 가장 빛나게 하면서 지금도 스페인사람들의 대화에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언어가 갖는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로써 시인이 의도한 바를 밝히거나 주어진 단어로 다른 것을 의미 확장하여 암시하고자 하는 양의어의 사용이다.

1) 『죽음 저 너머의 사람』, 민음사 ≪이데아 총서 48≫, 1992, 348-357.

www.kci.go.kr

2. 본론

케베도는 같은 소리의 다른 의미의 단어들을 어떤 경우는 단어에 국한 시켜 이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문맥 내 다른 어휘들과 연계하여 의미를 더욱 더 과장되도록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단어, 문맥, 사회적 상황에 걸쳐 보여지고 있다.

2-1 단어에서의 양의어

다음의 시는 그 당시 화폐단위를 가지고 자신의 의도를 밝히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이다.

그의 부모님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귀족의 혈통을 가졌죠.
그건 동방의 혈관에
흐르는 피는 모두가 왕족이기 때문입죠.
그래서 그는 부자나 동냥뱅이나
똑같게 하죠.
전능한 기사
돈 양반이다.
(Son sus padres principales,
Y es de nobles descendiente,
Porque en las venas de Oriente
Todas las sangres son Reales.
Y pues es quien hace iguales
Al rico y al pordiosero,
Poderoso caballero
Es don Dinero.

'혈관vena'이란 단어에는 광맥이란 의미도 있다. 다시 말해 광맥이 품고 있는 것은 금이다. 왕족이라는 의미를 갖는 스페인어 단어는 가치가 높은 은화를 의미

www.kci.go.kr

하기도 한다.

자기 가문에서 가장 비천한
카스티야의 도냐 블랑까가
한없이 영광스러워 보인다는 사실이
어느 누구에게 놀랍지 않겠는가요?
그러나 그의 힘은
비겁쟁이나 전사나 다 겸허하게 하는 고로,
전능한 기사
돈 양반이다.
¿A quién no le maravilla
Ver en su gloria, sin tasa,
Que es lo más ruin de su casa
Doña Blanca de Castilla?
Mas pues que su fuerza humilla
Al cobarde y al guerrero,
Poderoso caballero
Es don Dinero.

10행의 '도냐 블랑까'는 프랑스의 루이 8세와 결혼했던 공주이다. 그 사건은 당시 스페인 왕실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이 공주의 이름 블랑까는 이러한 인명 외에 가치가 아주 미약한 동전이름이기도 하다. 그 동전의 가치에 빗대어 공부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다.

아무리 그의 삶이 곤고하다 할지라도
그의 위대함은
몸이 넷으로 토막이 나도
격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대단하지요.
그러나 그는
비천한 자나 하루 품삯꾼에게
권위를 세워주니

www.kci.go.kr

전능한 기사
돈 양반이다.
Es tanta su majestad,
Aunque son sus duelos hartos,
Que aun con estar hecho cuartos
No perde su calidad.
Pero pues da autoridad
Al gañan y al jornalero,
Poderoso caballero
Es don Dinero.

19행의 의미는 1/4의 의미를 갖는 돈의 단위로 가치가 얼마 안 되는 구리동전을 뜻하기도 한다. 이 돈 단위로 '네 토막내다estar hecho cuartos'는 것은 몸을 네 토막낸다는 의미로 그 당시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가했던 형벌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느 곳에서든
전쟁에서의 군의 문장보다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
평화시 방패들이 더 가치가 있지요.
고로 토착민을 유배시키고
외지인을 자기 사람으로 하죠.
전능한 기사
돈 양반이다.
(전능의 기사 돈 양반 중에서)
Más valen en cualquier tierra
(Mirad si es harto sagaz)
Sus escudos en la paz
Que rodelas en la guerra.
Pues al natural destierra
Y hace propio al forastero,

www.kci.go.kr

Poderoso Caballero
es don Dinero:
de "Poderoso caballero es don Dinero")

26행에서 군대의 문장은 돈의 단위 이름이자 방패라는 뜻이 있는 앞의 '에스꾸도'와 짝을 이루기 위해 끌어 온 군의 조그맣고 둥근 문장이다. 29행의 '방패 escudo'는 방패라는 의미이외 에스꾸도라는 동전을 말하며 이 동전의 가치는 금화의 반 가격이었다. 30행에서는 원래의 용도인 방패로 사용하지 않고 돈으로 썼다라는 의미이다.

다음의 시는 점성좌 이름을 가지고 양의적 의미로 시인의 의도를 밝힌 경우이다.

그녀의 뼈 마디마디마다
한 점성가가 있고,
뼛속으로는 쉴새없이
새로운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
처녀좌에서 나온 이래,
그 자리에 비너스가 들어갔고,
그녀의 코는 게성좌로
나머지는 쌍동좌로 자리잡았다.
(한 처녀가 안뜬 마르띤에서 갖고 있던 골칫덩어리를 치료하다 중에서)
(En cada canilla suya
Un Matemático está,
Y anda el Pronóstico nuevo
Por sus huesos sin parar.
Desde que salió de Virgo,
Venus entró en su lugar,
En el Cáncer sus narices
Y en Géminis lo demás:
de "Cura una Moza en Antón Martín la tela que mantuvo")

4-5행은 뼈의 고통으로 점성가들이 기압의 변화를 알렸다는 데서 나온 표현이

www.kci.go.kr

다. 12궁좌를 통하여 본래의 단어에는 없는 의미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병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5행-8행의 의미는 이렇다. 처녀좌는 여기서 숫처녀를 의미하고 이은 '비너스'에서는 사랑을 알게 됨을 뜻하고 있다. 그래서 쌍동이좌는 서로 포옹하고 있는 두 인간의 형상을 갖고 있어 하나는 사랑을, 하나는 병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쌍동이좌 '헤미니스géminis'에는 고약이라는 의미도 있는 데 케베도 당시 농창을 치료할 때 썼던 약으로 매독에 걸리면 종기나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으로 사랑을 알고 몸을 굴리다 얻은 병을 치료한다는 의미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양의어 방법을 교묘하게 절충하여 만든 경우로 시인의 자신의 탄생과 타고 난 운명을 노래한 시도 있다.

나의 엄마는 어쩌다가 나를 낳으셨고,
날 만들 때 자연은
딴 데 정신이 팔려 있긴 했지만
날 낳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마리베디의 달이
대지를 밝히고 있었지,
태어나는 자가 나였기에
일 쿠아르또도 아까워했다.
태양이 날 수치로 여겼기에
난 흰자위와 노른자위 사이
어중강한 밝기의 늦은 저녁에
태어났다.
수요일과 화요일이
굉장한 싸움을 치렀는데,
그건 어느 누구도 내가
자기 날에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서였어.
(Parióme adrede mi Madre,
¡Ojalá no me pariera!
Aunque estaba, cuando me hizo,
De gorja Naturaleza.

www.kci.go.kr

Dos maravedia de Luna
Alumbraba a la tierra,
Que por ser yo el que nacía,
No quiso que un cuarto fuera.
Nací tarde, porque el Sol
Tuvo de verme vergüenza,
En una noche templada,
Entre clara y entre yema.
Un miércoles con un Martes
Tuvieron grande revuelta,
Sobre que ninguno quiso
Que en sus términos naciera.

5행의 이 마라베디는 그 당시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태어난 순간을 경멸하기 위하여 달의 면, 즉 초승달에서 반달이 되는 중간을 암시하고 있다. 케베도 시대에 이 마라베디는 구리돈인 1 꾸아르또의 반 가격이었다. 어중간한 밝기까지 상상해 보면 얼마나 이 단위의 돈이 가치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천칭좌로 태어났기에
천칭으로 마음이 이끌려
나의 모든 사랑을 자식들을
파는 에미들에다 두었지.
사좌좌는 내게 4일 열을 줬고,
전갈좌는 그의 혀를,
처녀좌는 그를 찾을 희망을,
그리고 웅양좌는 그의 인내를 내게 줬다
(자기의 탄생과 타고난 운명에 대해서 말하다 중에서)

Nací debajo de Libra,
Tan inclinado a las pesas,
Que todo mi amor le fundo

www.kci.go.kr

En las madres vendederas.
Diome el León su curtana,
Diome el Escorpión su lengua,
Virgo, el deseo de hallarle,
Y el Carnero su paciencia.
:Refiere su nacimiento, y las propiedades que le comunico)

천칭좌는 황도대의 일곱 번째 좌로서 9월부터 시작되는 데 케베도는 9월 17일에 태어났고 이 점성좌는 천칭으로 상징된다. 천칭은 시인의 '마음이 이끌리는tan inclinado' 대상인 금의 무게를 다는 데 쓰였다. 한 가지 단어로 동시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20행을 보면 그 당시 딸을 파는 어미들이 있었다. 돈이 있는 자는 딸을 살 수 있었고 어미는 받는 금의 양만큼 균등하게 딸을 팔았기 때문에 그 판매가를 천칭으로 재어서 매기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21행의 사자좌는 황도대의 다섯 번째 좌로 7월 중순에 시작된다. 따라서 대단히 더운 때라 사람들이 4일 간격으로 몰려오는 더위를 견뎌내야 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22행의 전갈좌는 황도대의 여덟 번째 좌이면서 뒤이은 '혀lengua'로 보건데 전갈과 의미가 연결되어 독설을 의미하고자 한 시인의 뜻이 보인다. 23행의 처녀좌는 여섯 번째 좌이지만 여기서는 뒤이은 '그le'로 인해 그는 처녀를 찾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24행은 황도대의 첫 번째 좌인데 양의 온순과 인내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함께 암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2-2. 구문 상에서의 양의어

양의어가 단지 같은 소리에 다른 의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에서 상호 작용과 암시로 인하여 의미가 확장되고 시 전체 의미가 강화되는 경우의 시에서 케베도의 양의어를 사용을 분석해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양상은 가장 완성도가 높아 케베도 시중 기념비적인 시로 회자되는 다음의 풍자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코에 붙어 있던 사람이었죠,

www.kci.go.kr

최고로 큰 코였습니다.
반 살아 있는 증류기였습니다.
턱수염을 잘못 기른 청새치였습니다.
얼굴을 잘못 들이 맨 해시계였고,
입이 위에 붙은 코끼리였으며
서기와 법률가의 코였으며
코가 잘못 난 오비디오 나손이었습니다.
갤리의 충각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였습니다.
열두 부족의 코였습니다.
무한한 코였습니다.
가면의 사납고도 거대한 코였으며
검붉은 기름에 튀긴 퉁퉁 부운 종기였습니다.
(“코 큰 사람에게 부쳐”)
(Erase un hombre a una nariz pegado,
Erase una nariz superlativa,
Erase una alquitara medio viva,
Erase un peje espada mal barbado;
Era un relój de sol mal encarado,
Erase un elefante boca arriba,
Erase una nariz sayón y escriba,
Un Ovidio Nasón mal narigado.
Erase el espolón de una galera,
Erase una pirámide de Egito,
Los doce tribus de narices era;
Erase un naricísimo infinito,
Frisón archinariz, caratulera,
Sabañón garrafal morado y frito.
A un hombre de gran naríz)

이 시는 큰 메부리 코를 가졌던 공고라의 코를 두고 말한 것이라는 이론도 있다. 공고라는 바로크 시학의 양대 산맥인 과식주의의 대가로 개종한 유대인이었

www.kci.go.kr

다. 코가 굉장히 컸다고 하며 케베도와 공고라 사이의 불화는 너무나 유명하여 상대방에 대한 공박은 작품에 대한 비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면으로까지 나가갔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사용된 어휘들이 갖는 또 다른 의미들을 밝혀내기란 그리 쉽지 않으며 밝혀진 의미로 공고라의 신분과 행위 및 성격까지 알 수 있어 케베도의 양의어 사용에서의 기지가 돋보인다.

4행의 '청새치peje'라는 단어에는 '생선'과 '놀란 사람'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 가있다. 그러므로 두 가지로 의미가 확장된다. '턱수염을 기른barbado'라는 단어에는 얼굴에 수염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도 있고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와 해부학에서 연골 중 'barbas'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코의 뼈는 연골로 되어있다. 이런 코가 수염과 큰 지느러미를 단 청새치 같은데 그것도 턱수염이 잘 못났다는 것은 콧구멍에서 삐져나온 풍부한 콧털을 말하는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2] 5행의 '잘 못났다 mal encarado'에서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다. 잘못 방향을 잡은 해시계라서 해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 '그림자, 어두운'이라는 의미가 있고 '추한 얼굴'이라는 의미가 있다 나머지 하나는 케베도는 공고라의 코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이 해시계를 닮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해시계의 바늘을 코에다 빗댄 것 같다. 그런데 그 바늘이 해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향을 쫓아가고 있으니 햇빛이 향해서 환한 것이 아니라 음침하고 칙칙해서 못생긴 얼굴로 의미가 확장된다. 6행의 '입이 위에 붙은 코끼리'라면 일단 엄청난 덩어리로서의 코에 대한 이미지가 우선하면서 코를 트럼펫처럼 위로 올리고 우는 코끼리를 연상시킨다. 얼굴색은 칙칙하고 코는 붉고 엄청 큰 것으로 봐 추한 얼굴이 그려진다.

8행의 '판관과 법률가의 코nariz sayón y escriba'는 일단 코가 판관들이나 성주간 행사 때 행렬에 참가한 사람들이 입었던 커다랗고 땅에 질질 끌리는 큰 옷에 빗대어 있다. 이 옷을 입은 신도단의 외형을 연상하게하면서 이 복장의 색이 보랏빛이었는데 그 색까지 코에게 부여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법률가라는 직업은 주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으로 유대인임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2) http://www.literaturafacil.com/Archivos/aunhombredegrannnariz.htm

www.kci.go.kr

한다. 그리고 '판관sayón'이라는 단어에는 유대인을 의미하는 사형집행인과 반항아, 험악한 외모의 사람이라는 다른 뜻도 있다. 이로써 공고라의 출신과 외모와 성격까지 암시하고 있다. '법률가escriba'는 유대인들이 주로 했던 법해석가나 법학박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스페인어의 '쓰다escribir'라는 단어를 연상시켜 서기가 글을 쓸 때 앞으로 상체가 기우린 모습을 연상하게 하면서 크고 동시에 코가 앞으로 길게 늘어진 모습으로 생각을 발전시키는데 유대인들의 코를 특징짓는 메부리코를 떠올리게 한다. 이 모든 의미가 단 두 단어로 된 한 개의 시행으로 가능하다는 게 작가의 양의어 사용에서의 놀라운 기술이다. 이것으로도 케베도는 공고라를 흉보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어지는 두 연에서 코를 말하는 은유들이 엄청나게 과장되어 있다.

2-3 시대 상황에 따른 양의어

케베도가 살았던 스페인의 17세기는 문예적으로는 앞 선 르네상스기의 다음 단계로 조화와 균형이 파괴되는 시기였으며 사회, 정치적으로는 대제국의 몰락을 견뎌내야 했던 환멸의 시기였다. 이 두 가지 역사적 상황이 언어의 마법사이자 논쟁의 중심에 있었으며 대단한 논객이자 정치가였던 케베도의 작품 활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케베도는 그 당시 쇠락하고 부패가 만연하던 시대 상황을 묘사하기 위하여 기존의 단어를 가지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키는 양의어를 풍자를 목적으로 즐겨 사용했다. 특히 케베도 당시 승직에 있는 사람들의 애정행각이나 공무원들의 비리 및 잘못 된 결혼이나 남녀 관계 및 결혼 후 있었던 비도덕적인 부부관계에 대해서 케베도의 잔인하고도 신랄한 언어는 예외가 없었다. 이 모든 비난의 대상들을 다음 시에서 케베도의 언어로 만날 수 있다.

너, 베니따, 네가
다른 것들과 함께 그에게
주었던 천 개 이상의 뿔들을
모직으로 된 그의 사각모의 네 개의 뿔로 숨기며,
그 유명한 성기계 승려이자 5

www.kci.go.kr

그 불쌍한 파비오인
너의 바람의 종탑에서
종을 쳤던 자는
 이미 다 낡아
찢어진 망토로
(Cubriendo con cuatro cuernos
De su bonete de paño
más de mil que tú, Benita,
Le has puesto con otros tantos,
 Aquel sacristán famoso,
Aquel desdichado Fabio,
El que a tus torres de viento
Repicó los campanarios,
 Después que el manteo raído,
Ya que no desvergonzado,

여기서 '뿔cuerno'은 짐승의 머리에 나는 것이라는 의미이외에 자기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 정분을 맺는 일을 뜻하기도 한다. 즉 오쟁이 지는 것이다. '4개의 뿔cuatro cuernos'은 네 귀퉁이가 위로 솟은, 연이은 행에서 나오는 성기계 승려에 대한 언급으로 성직자들이 썼던 모자라는 뜻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케베도가 그 당시 도덕적으로 타락한 종교계를 빈정거리고자했음을 알 수 있다. 7행의 '바람의 종탑torres de viento'에서는 칼날(hoja de espada) 또는 종이낱장(hoja de papel)에서 처럼 그 자체의 의미 이외에 부질없는 생각이나 제정신에서 벗어난 과시적인 착상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종을 쳤던repicó los campanarios'은 성기계 승려의 일이 교회 탑에서 종을 치는 것이었으므로 액면 그대로 종을 치는 일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생각들을 믿고 알린다'라는 다른 의미가 있다. 이어 '낡아 찢어진 망토el manteo raído'는 성기계 승려들이 입는 망토가 낡았다는 뜻도 잇지만 그들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외형상의 복장 모습과 함께 이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랑 놀음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www.kci.go.kr

가장 주된 첫 번째 선물은
숭고한 신발 한 짝,
플라슈의 점수로 보건데
발에 보다 바로 은행에 안성맞춤이겠더군.
그리고 나서 뭔지 모를
황갈색의 비단으로
된 오랏줄을 꺼냈는데
유다의 모가지에나 쓰였음 직 했어.
신교들의 끈보다
훨씬 더 못한 끈은,
Lo primero y principal
Fue un reverendo zapato,
Con puntos de flux, muy propio
No al pie, sino al mismo banco.
Luego un lazo que tenía,
De no sé qué cendal pardo,
que a la garganta de Judas
Pudiera servir de lazo.
Una liga muy peor
Que la de los Luteranos,

‘플라슈flux’의 원뜻은 카드놀이에서 가진 패가 모두 같은 종류가 되는 일인데 이 카드 놀이에서 나온 점수로 신발의 크기를 측정하고 있다. ‘발pie’은 우리 신체 중의 일부를 지칭하는 용어이면서 카드놀이에서 마지막으로 패를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발’ 뒤에 이어 나오는 ‘은행banco’과 연관되어 ‘은행발’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스페인어에 있는 유사한 표현인 ‘은행다리’또는 ‘닭다리’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표현은 대화에서 적절하지 못한 말이나 멍청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과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할 때를 일컬을 때 사용한다. ‘닭다리’에는 간계, 계략이라는 뜻도 있다. ‘오랏줄lazo’은 액면대로의 의미이외 사랑놀이에서 맺음, 결합 또는 간계, 속임수라는 뜻도 있다. ‘끈liga’에서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끈’이라는 의미이외에 여성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두 번째 다시 등장한 ‘끈’은 이 시에서는

www.kci.go.kr

스타킹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붙잡아 매는 밴드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가장 나쁜 질의 천 쪼가리로
가장 최근에 만들어 졌던 거더군
 그리고는 떡갈나무와
밤나무 사이로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꺼냈지,
부스럼 때문에
옛날에 네게서 빠졌던 것이야.
 가장 긴 것들은 서캐로
된 염주란 걸 알았을 때
그의 기쁨이 어떠했는지 이 점에서는 레또르나
베오나 꾸리오소나 끄리스띠아노가 생각해 봤으면 해.
Recién convertida a liga
Del mal estado de trapo.
 Sacó luego unos cabellos
Entre robles y castaños,
Que a intercesión de unas bubas
Se te cayeron antaño.
 Considere aquí el Letor,
Pío o Curioso o Cristiano,
Su gozo al ver que de liendres
Eran sarta los más largos.

‘떡갈나무와 밤나무사이로entre robles y castanos’는 전원시에서 주로 등장하는 나무들인데 이 나무들의 이미지를 빌려와서 앞선 ‘끈’에 연결시켜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내고 있다. 즉 더부살이 나무들이다. 끈의 이미지가 덩굴의 의미로 확장되고 이 덩굴들이 주로 기거하는 나무인 떡갈나무까지 연상된다. 이 시행의 의미는 밤나무의 밤색을 연상시켜 ‘밤색의 스타킹 밴드 사이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염주 sarta’는 보통 구슬, 보석, 진주를 줄줄이 이어 만든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케베도는 염주처럼 꿰여 덩어리 상태로 엉겨 붙어 사는 서캐들이라는 의미로 넓히고 있다.

www.kci.go.kr

너의 사진을 찾아내어
그것을 바라볼 때
누렇고 여윈 것 때문에
황무지의 신부의 것을 갖고 있나 했지.
이마는 법원 서기의 양심보다
훨씬 더 넓었고
활 같아야 할 눈썹대신
석궁의 눈썹이며;
성부의 코만큼이나
납작코라, 네
(...)
Descubrio un retrato tuyo,
Y halló que tiene, al mirarlo,
Cosas de padre del yermo
por lo amarillo y lo flaco;
La frente mucho más ancha
Que conciencia de escribano;
Las dos cejas en ballesta,
En lugar de estar en arco;
La nariz casi tan roma
Como la del Padre Santo,
(...)

‘누렇고 여윈por lo amarillo y lo flaco’는 신부가 금식을 하다 보니 갖게 된 마르고 누렇게 뜬 얼굴을 말하면서 이러한 몰골을 통해 여자의 추함을 의미하고 있다. ‘황무지의 신부padre del yermo’ 는 사막에서 내성과 참회와 금식의 생활을 했던 은둔자를 일컬으며 더 아나가 방탕한 삶을 산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다. ‘법원서기 escribano’는 말 그대로 법원의 서기이다. 그러나 케베도 당시 이들은 도둑으로 취급되었다. 서류를 허위기재하거나 죄를 조작했으며 매수와 사기에 능한 협잡꾼이라는 의미로 까지 이 말은 확장되고 있다. ‘납작코 nariz roma’는 이 시에서 추녀의 특징 중 하나로 케베도가 언급하면서 이탈리아 도시 로마를

www.kci.go.kr

동시에 의미하고 있다. 로마 교황청, 로마 교화의 권력이란 뜻과 같다. 바로 다음 행에서 '성부 padre santo'가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로마가 갖는 다른 의미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

끝으로 속 양말 한 켤레를 찾아냈는데,
이는 감기에 걸리지도 않았는데도
너의 발뒤꿈치에서 육 개월을
땀에 절어 있었던 것이야.
서글픈 자는 증표들을 보자, 65
한숨을 내쉬며
그의 고뇌의 병풍에다
새 테두리로 그것들을 둘렀지.
(...)
(연인들이 주는 우스꽝스러운 사랑의 증표들의 거짓 형상을 조롱하며 중에서)
Tomando estuvo sudores
Seis meses en tus zancajos.
Miró las prendas el triste,
Y al momento suspirando,
A su retablo de duelos
Las puso por nuevo marco.
(...)
(De En la simulada figura de unas prendas ridículas, burla de la vana estimación que hacen los amantes de semejantes favores)

'발 뒤꿈치 zancajos'는 직역하면 뒤꿈치지만 양말 뒤꿈치가 찢어진 것을 암시하기도 하고 볼품없는 인간이나 무지한 인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뇌의 병풍 retablo de duelos'는 한 인간의 비참한 모든 삶의 양상을 통틀어 의미하는 데, 각각의 단어로 밝히지 못할 의미를 조합함으로써 작가가 의도하는 바를 표현하는 언어의 조합 능력이 눈부시다.

www.kci.go.kr

3. 나가는 말

케베도가 살았던 스페인 바로크 시대 문학의 특징은 과식주의와 기지주의라 할 수 있다. 공고라로 대표되는 과식주의는 문학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형식의 복잡성과 감각적인 즐거움과 이미지를 추구하였다면 기지주의는 의미적인 면에서 개념의 강세화, 집중화를 꾀하여 지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케베도는 자신이 추구하는 의미를 갖는 언어들을 찾아내야 했는데 그런 언어가 없을 경우는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썼다. 예로 강세접두어나 약세접두어를 붙이거나 접미사를 부치고, 형용사, 동사, 부사 등에도 어미를 붙여서 기존의 의미에다 자신이 의도하는 새로운 의미를 더하여 단어들을 만들어냈다. 이밖에 축소사를 사용해서 케베도가 의도하는 의미를 갖도록 하기도 했고 접사를 붙여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단어들도 만들어 썼다. 물론 같은 음으로 이루어지는 운율의 효과를 노린 어휘들도 있고 유사한 음의 어미변화로 운율과 함께 다양한 의미의 단어들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방법이 부족하면 두 개 이상의 낱말들을 하나의 단어로 묶어 각각의 단어가 갖는 의미들을 하나의 단어에 합하기도 했다. 명사에 새로운 형태소를 붙여서도 만들었고 어떤 경우는 하나의 단어를 두 행에다 갈라서 쓰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기도 했다. 특히 그의 신조어는 출처가 다양한데 이 신조어들은 그 당시 스페인 바로크 문학에서 풍자문학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중 가장 케베도의 조어 능력을 눈부시게 보여준 것이 보편적으로 쉽고 분명하게 사용되는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만이 아니라 제 2, 제 3의미로써 시인의 의도에 따라 적용시켜서 사용한 것에 있다.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암시하기 위하여 전혀 관계없는 단어들을 조합시켜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고 특정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다른 상황에다 적용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기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양의어를 통한 조어 방법은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내기위하여 케베도가 사용한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그의 기지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신조어 기술 중의 하나이다. 케베도가 새로이 만들어 낸 언어 및 의미들은 많지만 합법적으로 스페인어로 공용화된 것들은 거의 없다. 단지 양의어의 경우는 스페인의 공식 언어이면서 스페인 문법의 법칙을 넘어서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바라는 바를

www.kci.go.kr

기지를 통하여 내보이려는 욕망의 발로의 결과로 지금도 재담이나 유머 또는 암시 방법으로 즐겁게 사용되고 있다.

❖ 참 고 문 헌

케베도, 안영옥 옮김,『죽음 저 너머의 사랑』≪이데아 총서 48≫, 민음사, 1992.
Alborg J.L., *Historia de la Literatura Española II*, Madrid, Gredos, 1977.
Alonso, Damaso, Poesía española, Madrid, Gredos, 1993.
http://www.educajob.com/xmoned/temarios_elaborados/castellano/5...
http://www.letraturafacil.com.Archivos/aunhombredegrannariz.htm
http://sapiens.ya.com/auladelengua/poesiaxvii.htm
www.cervantesvirtual.com/fichaobra.html?Ref=26291
www.cvc.cervantes.es/obref/quevedo_critica/p_amorosa/alons...
www.invenia.es/inveniatags;conceptismo
Quevedo, Francisco de, Ed. de James O. Crosby, *Poesía Varia*, Madrid, Cátedra, 1982.
_____, *Antología Poética*, Madrid, Castalia, 1989, Colección Castalia Didáctica, núm. 20.
Real Academia Española,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 22ed., 2001.
_____, *Diccionario de Autoridades*.

www.kci.go.kr

❖ ABSTRACT

Study of equivocation in Francisco de Quevedo' poems

Ahn, young-ok

Francisco de Quevedo y Villegas(1580-1645) is one of the most eye-catching personality of the XVII century. They consider him as the maximum representative of the Conceptismo, which is the current literary that has preference to ideas with the purpose to impress the intelligence. This technic, which is different compare to Gongora's Culterismo, is produced at the level of understanding. This is why they consider Quevedo's writing easy and transparent compare to Gongora's. But this is a wrong image, because the great writer, uses and accumulates conceptismo resorts which is very difficult. Below the simple apparent there are hidden surprises.

The language of Quevedo has a deepness in the meaning of the word, with the purpose to impress the intelligence. He tries to prevent to mention the referent with a usual signification, naming it with another symbol which has a relation with the signifiant or with the signifie itself. This is how the neologismo was created. The similarity of the signification is shown through paradox, paronomasias, calambures, retruecanos, dialogias or equivocos. The resemblance of the significations leads to metaphors not with the purpose to embellish like the Culteranismo, but to excite the theme.

This is why in this work we will focus on the games of the words named as ambiguity, which is the use of the same word with different meanings

www.kci.go.kr

at the level of the phrase as vocabulary, which stands out at the burlesque's poems to deform the reality or the human in extreme ways. It recreates inthis resort the disloyal marriage(in concrete with the themes of cornudos), varied occupations such as pharmacist and doctors and the literates such as the invective Gongora or of himself.

Key Words
eqivocation, ambiguity, burlesque poem, Francisco de Quevedo

논문접수일: 2008. 4. 21.
심사완료일: 2008. 5. 20.
게재확정일: 2008. 6. 13.

www.kci.go.kr